

〈일반논문〉

唐 初期 西域 羈縻府州의 지역적 고찰*

李 眞 善 **

—〈목차〉—

- I. 머리말
- II. 타림분지와 河西內屬諸胡 지역
- III. 吐火羅 일대
- IV. 河中과 天山山脈 이북
- V. 맺음말

[국문초록]

羈縻府州는 내부하거나 정복한 이민족을 부락별로 나누어 都督府·州 등을 설치해 各級 수장을 都督과 刺史로 삼아 세습하게 하고, 그 고유한 풍속을 유지하게 한 제도이다. 이는 당조가 이민족을 관리하는 방식의 하나로 기미부주 제도의 전형적인 모습이 唐 前期에 보인다. 西域에 설치된 기미부주는 당조와 주변 세력 간의 관계에 따라 설치와 폐지가 반복되었고, 그 기미 방식 역시 변화하였다.

『舊唐書』와 『新唐書』 地理志, 『唐會要』 安西都護府 조에는 서역에 설치된 기미부주가 열거되어 있다. 첫째는 타림분지에 설치된 龜茲, 毗沙, 疏勒, 焉耆 네 개

* 이 글은 동북아역사재단 ‘2017년도 대학원생 한·중 역사 현지조사연구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음.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학과 박사수료

의 都督府·州이다. 둘째는 吐火羅 일대에 설치된 16都督府, 80州, 110縣, 126軍府이다. 또 『신당서』 西域傳 등에는 현재 중앙아시아 河中 지역의 昭武九姓에 설치된 것과 天山山脈 이북 西突厥 영역에 설치된 기미부주도 보인다. 이러한 기미부주는 安西都護府에 예속되었다.

타림분지에 설치된 四鎮都督府는 태종 貞觀 연간(627~649)에 설치되었다. 토화라의 16도독부 등은 고종 顯慶 3년(658) 경부터 설치되기 시작하여 龍朔 원년(661)에 이르러 대략 80주, 110현, 126군부를 거느렸다. 이는 서역에 대한 당조의 영향력이 점차 서쪽으로 확대 되어감을 의미한다. 唐 初期 태종에서 고종대에 이르는 시기의 서역 기미부주 설치에 대한 지역적 고찰은 당과 서역 주변 諸세력과 의 관계를 살피는 한 방편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 주제어

서역, 기미부주, 타림분지, 토화라, 소무구성

I. 머리말

羈縻府州는 내부하거나 정복한 이민족을 부락별로 나누어 都督府·州 등을 설치해 各級 수장을 都督과 刺史로 삼아 세습하게 하고, 각자의 고유한 풍속을 유지하게 한 제도이다. 당대에는 특히 都護府 혹은 邊州 都督府를 두어 여기에 기미부주를 예속시켰다.¹⁾ 기미부주 제도는 당조

1) 『新唐書』 권43하, 地理志7下, 羈縻州 조, “唐興, 初未暇於四夷, 自太宗平突厥, 西北諸蕃及蠻夷稍稍內屬, 卽其部落列置州縣. 其大者爲都督府, 以其首領爲都督·刺史, 皆得世襲. 雖貢賦版籍, 多不上戶部, 然聲教所暨, 皆邊州都督·都護所領, 著于公式”(1119쪽). 이 기록은 당대의 기미부주를 정의하는 대표적인 사료라고 할 수 있

가 이민족을 관리하는 방식의 하나로 당대에 처음 만들어졌는데, 그 전형적인 모습이 당 전기에 보인다.²⁾

安西都護府는 당대 邊境에 설치된 최초의 도호부로 태종 貞觀 14년 (640) 8월 交河道大總管 侯君集이 高昌國을 멸하여 9월 그곳을 西州로 삼은 뒤 이곳에 설치되었다. 이후 안서도호부는 당조가 서역을 통할하는 최고 통치 기구로 역할하였다. 당대의 변경에는 각각의 기미부주와 도호부·변주 도독부가 설립되었지만, 그 운영 양상은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유연하게 시행되었다.

서역 기미부주는 당조와 주변 세력 간의 관계에 따라 설치와 폐지가 반복되었고, 그 기미 방식 역시 변화하였다. 서역 기미부주의 설치에 대하여 吳玉貴는 葱嶺 이서에 설치된 기미부주의 설치 연대와 그 숫자를 연구하였고,³⁾ 蘇北海는 지역 구분을 기준으로 타림분지, 아무다리야 강 이북 및 시르다리야 강 유역, 총령 및 아무다리야 강 이남에 설치된 기미부주를 열거하였다.⁴⁾ 劉統은 서역 기미부주의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여 기미부주의 興廢와 당조 영토의 伸縮을 설명하였다.⁵⁾ 敦煌 이서에서 波

다. 다만 기미부주는 태종대가 아닌 고조 시기에도 있었고, 사서에 기록된 기미부주의 숫자에 누락이나 차이가 있다는 등의 지적은 일찍부터 있었다(劉統, 『唐代羈糜府州研究』, 西北大學出版社, 1998, 2~5쪽; 정병준·채지혜·유승철 역, 「당대 기미부주 연구(1)」, 『新羅史學報』 23, 2011, 646~652쪽), 『신당서』 지리지, 기미부주에 관한 상세한 해석과 분석은 김택민, 「특별한 帝國 唐」, 『역사학보』 217, 2013, 42~50쪽; 정병준, 「唐代 異民族 管理方式의 다양성 및 그 변용 -羈糜府州 제도를 중심으로-」, 『東洋史學研究』 143, 2018, 4~13쪽 참조.

2) 채지혜는 북방 기미부주를 중심으로 당대 기미부주 제도가 완비되어 가는 과정을 시기에 따라 단계별로 연구하였다(채지혜, 「唐 前期 北方 羈糜府州의 設置와 變化」, 『東洋史學研究』 125, 2013, 137~162쪽).

3) 吳玉貴, 「唐代西域羈糜府州建置年代及其與唐朝的關係」, 『新疆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86-1.

4) 蘇北海, 『西域歷史地理』, 新疆大學出版社, 1988, 98~127쪽.

5) 劉統, 『唐代羈糜府州研究』, 109~134, 179~183쪽.

斯 이동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은 다양한 자연환경으로 이루어져 있고 당과의 인접성에서도 차이가 있어 이곳에 설치된 기미부주의 형태가 모두 동일하지는 않다. 그러므로 서역을 지역별로 나누어 고찰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한 방법일 것이다. 서역에 설치된 기미부주는 『舊唐書』·『新唐書』의 地理志에 그 명칭과 숫자가 기록되어 있지만 누락된 부분이 있고, 설치 당시의 정황이나 관련 인물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으며, 『구당서』와 『신당서』 사이의 기록에서도 기미부주의 명칭과 소속 기미주에 차이가 있다. 서역 기미부주에 대해서는 『구당서』·『신당서』의 西域傳, 『資治通鑑』, 『通典』, 『唐會要』, 『冊府元龜』 등에도 산재하는데, 이 기록들 사이에는 서로 모순되는 부분도 있어 사료의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

이 글은 天山 이남의 타림분지와 河西內屬諸胡 지역, 吐火羅 일대, 昭武九姓이 위치한 중앙아시아의 河中 지역과 천산 이북 西突厥 지역으로 구분하여 그곳에 설치된 唐 初期 서역 기미부주에 관한 『구당서』·『신당서』의 지리지 및 서역전 기록 등을 정리하면서 그 설치 연대와 배경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려는 것이다. 태종에서 고종대에 이르는 시기의 서역 기미부주 설치에 대한 지역적 고찰은 당과 서역 주변 諸세력과의 관계를 살피는 한 방편으로서의 의미도 지닐 것이다.

II. 타림분지와 河西內屬諸胡 지역

타림분지는 현재 新疆維吾爾自治區 내에 위치하며 북쪽으로는 天山山脈, 남쪽으로는 崑崙山脈으로 둘러싸여 있고, 분지의 중앙부는 타클라마칸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위 산맥에서 만년설이 녹아내려 예로부터 오아시스 도시가 발달하였다. 이 오아시스 소국가들은 교통로의 거점

으로 이용되어 중개무역으로 번영하였다.

당 초기의 타림분지에는 高昌, 焉耆, 龜茲, 于闐, 疏勒 등의 국가가 있었다. 이들 지역은 태종 시기 당조가 서쪽으로 대외전쟁을 수행하면서 일부는 영토로 만들고, 일부는 세력권으로 편입시켰다. 『구당서』 권40, 地理志3, 河西道, 安西都護所統四鎮 조에는 安西都護府가 통할하는 龜茲都督府, 毗沙都督府, 疏勒都督府, 焉耆都督府 4개의 羈縻府가 열거되어 있다. 이들을 四鎮都督府라 하는데, 모두 천산 이남에 위치하며 焉耆國이 당의 영토와 가장 가깝고, 그 다음이 龜茲國이며, 疏勒國은 구자국의 서쪽에, 于闐國은 구자국의 동남쪽에 위치하였다.

- A. 구자도독부는 본래 龜茲國이다. 그 王의 姓은 白이며 白山의 남쪽을 다스린다. 瓜州에서 3천 리 떨어져 있고, 勝兵이 수천이다. 貞觀 22년 阿史那社爾가 구자국을 격파한 뒤 구자왕을 사로잡아 돌아가자 그 땅에 도독부를 설치하고 9개의 蕃州를 관할하게 하였다. 顯慶 3년 賀魯를 격파하고 안서도호부를 西州에서 龜茲國城으로 옮겼다.
- B. 비사도독부는 본래 于闐國이다. 葱嶺 북쪽으로 200리에 있고, 勝兵이 수천이다. …… 그 왕 伏闐信이 정관 22년 당에 입조하였다. 上元 2년 정월 毗沙都督府를 설치하였다. 처음에는 5개 蕃州를 관할하였는데, 상원 원년 10개로 나누었다.⁶⁾
- C. 소록도독부는 본래 疏勒國이다. 白山의 남쪽에 있으며 勝兵이 2천이다. 瓜州에서 4천 600리 거리에 있다. 정관 9년 사신을 보내 朝貢한 뒤로 조공이 끊이질 않았다. 상원 연간에 소록도독부를 설치하였고, 안서도호부 서남쪽으로 2천 리에 있다.

6) 『구당서』 지리지에서는 상원 2년 도독부를 설치하고, 상원 원년에 10개 주로 나누었다고 하지만, 『신당서』 지리지에서 상원 2년에 도독부를 설치하고 10개 주로 나누었다는 기록에 따랐다.

D. 언기도독부는 본래 焉耆國이다. 그 왕의 姓은 龍이고, 이름이 突騎支인데, 항상 西突厥에 복속하였다. …… 정관 18년 郭孝恪이 평정한 뒤로 臣屬하였다. 상원 연간 그 部落에 도독부를 설치하였는데, 번주는 없다. 안서도호부의 동쪽으로 800리에 있다.⁷⁾

위 사료에 의하면 구자도독부는 정관 22년, 비사·소록·언기도독부는 대체로 상원 연간에 설치되었다고 전한다. 그러나 이 네 개의 도독부에 대해 『신당서』 권43하, 地理志7下, 羈縻州, 隴右道, 安西都護府 조에서는 다소 다른 내용을 전한다. 『신당서』 지리지의 내용은 『구당서』의 그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략하지만, 설치 연대나 소속 기미주인 蕃州에 대해 비교 검토할 만한 중요한 자료를 전한다.

- A. 四鎮都督府: 34州. 〈咸亨 원년 吐蕃이 安西를 함락하여 四鎮을 폐지하였다가 長壽 2년에 다시 설치하였다.〉
- B. 龜茲都督府: 〈정관 20년 구자를 평정하고 설치하였다.〉 9州를 관할한다.
- C. 毗沙都督府: 〈본래 우진국이다. 정관 22년 內附하여 처음 5州를 설치하고, 고종 상원 2년에 도독부를 설치하여 州를 10개로 나누었다.〉 10州를 관할한다.
- D. 焉耆都督府: 〈정관 18년 언기를 멸하고 설치하였다. ……〉
- E. 疏勒都督府: 〈정관 9년 소록이 內附하여 설치하였다.〉 15州를 관할한다.⁸⁾

※ 〈 〉는 原註

7) 『구당서』 권40, 地理志3, 河西道, 安西都護所統四鎮 조, 1648~1649쪽.

8) 『신당서』 권43하, 地理志7下, 羈縻州, 隴右道, 安西都護府 조, 1134쪽.

이 사진도독부의 설치는 당이 서쪽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⁹⁾ 서역 기미부주가 설치되기 이전 고창, 언기, 구자, 소록 등 타림분지 일대의 오아시스 소국가들은 당시 서방의 패자였던 돌궐의 영향 하에 있었다. 돌궐은 당 건국 초까지만 하더라도 오히려 당이 돌궐의 눈치를 봐야할 만큼 강성하였다. 그러나 태종 정관 원년(627) 경부터 돌궐 휘하의 薛延陀 등이 배반하였고, 자연재해와 내부 분란 등으로 인해 돌궐 세력은 약화되었다.¹⁰⁾ 이를 기회로 당조는 정관 4년(630) 동돌궐을 멸했다.

동돌궐 멸망의 여파는 서역의 국제정세를 진동시켰다. 정관 5년(631) 羌族의 拓拔赤詞가 내부하자 당조는 그를 西戎州都督으로 삼고 李氏성을 하사하였다.¹¹⁾ 다음 해에는 예로부터 동돌궐의 휘하에 있던 吐谷渾이 사신을 보내 來朝하고, 연이어 633년과 634년에도 사자를 보내 朝貢하였다.¹²⁾

『구당서』 西戎傳에서 소록에 대해 “정관 9년(635) 사자를 보내 名馬를 바치고 이로부터 朝貢이 끊이지 않았다”¹³⁾고 기술한 것도 동돌궐 멸망의 여파일 것이다. 이는 『신당서』 지리지에서 정관 9년에 내부하여 설치하였다는 것과 상통한다. 그런데 635년 소록의 조공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때

9) 당 초기 대외 원정을 통한 서역 지배의 구축 과정은 이진신, 「唐 前期 安西四鎮의 設置와 變化樣相」, 『東洋史學研究』 141, 2017, 96~106쪽 참조.

10) 김호동, 「唐의 羈縻支配와 北方 遊牧民族의 對應」, 『역사학보』 137, 1993, 133쪽; 정재훈, 『돌궐 유목제국사 - 아사나 권력의 형성과 발전, 그리고 소멸』, 사계절, 2016, 319~324쪽.

11) 『唐會要』 권98, 黨項羌, “五年, 詔遣使開其河曲地爲六十州, 內附者三十四萬口. 有羌酋拓拔赤詞者, 甚爲渾主伏允所暱, 與之結婚, 屢抗官軍. 後與其從子思頭並率衆與諸首領歸款, 列其地爲懿峇麟可等三十二州, 以松州爲都督府, 羈縻存撫之. 拜赤詞爲西戎州都督, 賜姓李氏. 自是, 從河首大磧石山已東, 並爲中國之境”.

12) 『冊府元龜』 권970, 外臣部, 朝貢3, 11398쪽.

13) 『구당서』 권198, 西戎傳, 疏勒 조, 5305쪽.

는 도호부나 도독부가 아직 설치되기 이전이므로 소록도독부의 설치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연구도 있다.¹⁴⁾ 그러나 고조 무덕 연간에 이미 기미주적 성격을 지니는 州가 설치되었다는 사실은 譚其驤, 堀敏一, 劉統 등에 의해 일찍부터 제기되었다. 기미부주는 그것이 설치된 해당 이민족에게 미치는 당조의 영향력 혹은 지배력, 당조의 임명을 받은 관리의 파견, 唐軍의 주둔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층차가 있다. 당군 주둔 등과 명목상에 불과한 정도의 차이를 고려하면, 명목상으로나마 소록도독부가 635년에 설치되었을 가능성은 높다.¹⁵⁾

타림분지 일대의 오아시스 소국가들은 규모나 자연환경으로 인한 자원 문제 등으로 인해 독립적이기 보다는 외부와의 결탁으로 국력을 유지하였고, 이 때문에 당시 국제정세의 역학관계에 따라 內附와 이반을 반복하였다. 정관 6년(632) 언기국왕 龍突騎支가 처음으로 당에 來朝하여 隋末의 혼란으로 막힌 교통로를 재개해 왕래할 수 있도록 청하였다. 당시 서역의 조공은 모두 고창을 경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기국은 고창국과 관계가 나빠져 그 침략을 받았다. 이에 언기국은 정관 14년(640) 당의 侯君集이 고창국을 공격할 때 군대를 이끌고 당군을 도왔고, 당조가 고창국을 멸한 뒤 고창국에게 빼앗긴 포로와 성곽을 언기국에 돌려주자 당과 우호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동돌궐이 멸망했다하더라도 서역에는 여전히 서돌궐이 남아 있었고, 언기국은 서돌궐이 돌기지의 딸을 부인으로 맞이하게 되면서 당에 조공을 끊었다.¹⁶⁾ 이를 명분으로 당조는 정관 18년(644) 安西都護 郭孝恪을 파견하여 언기를 공격하였다.¹⁷⁾ 그 결

14) 蘇北海, 『西域歷史地理』, 新疆大學出版社, 1988, 106쪽.

15) 이진선, 『唐前期 安西四鎮의 設置와 變化樣相』, 98~100쪽 참조.

16) 『신당서』 권221상, 西域傳上, 焉耆國 조, 6229쪽.

17) 『資治通鑑』 권197, 태종 정관 18년 9월 및 10월 조, “九月……焉耆貳於西突厥, 西突厥大臣屈利啜爲其弟娶焉耆王女, 由是朝貢多闕. 安西都護郭孝恪請討之. ……冬十月……郭孝恪鎖焉耆王突騎支及其妻子詣行在, 敕宥之”(6211~6213쪽). 또한

과 언기에 기미부가 설치된 것이다.¹⁸⁾

지리적으로 고창, 언기 다음에 위치한 구자국 역시 당의 침략을 피할 수 없었다. 구자국은 괘효각이 언기를 공격할 때 군대를 파견하여 몰래 언기를 도왔다. 이 때문에 정관 21년(647) 말 안서도호 괘효각과 崑丘道行軍大總管 阿史那社爾·副大總管 契苾何力이 출정의 명을 받아 다음 해 가을 구자국을 공격하였다. 당조는 정관 22년(648) 윤12월에 구자국을 평정하고 이곳에 구자도독부를 설치하였다.¹⁹⁾ 『신당서』 지리지에서 정관 20년에 설치했다고 하지만, 구자가 평정된 것은 정관 22년 말이므로 구자도독부의 설치하는 정관 22년이 타당하다.

우전국은 648년 아사나사이가 구자를 격파할 당시 당군에 군량 등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그 이전부터 당에 협조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구자 평정 이후 行軍長史 薛萬備가 우전국으로 가 당에 입조하도록 국왕을 설득하고, 다음해 7월 우전국왕 伏闡信이 당조에 來附하였다.²⁰⁾ 『신당서』 지리지에서 정관 22년에 내부하여 설치하였다는 것은 이 일을 말한다. 다만 우전은 처음 그 땅을 5개로 나누어 기미주를 설치하였다가 고종 상원 2년에 도독부로 승격시키면서 10주로 나누어 소속 기미주를 관할하게 하였다.²¹⁾

〈柳寶積墓誌〉에는 언기토벌에 묘주가 行軍長史로 참전한 사실이 보인다(樊波, 『新出唐墓志所見西域史事二題』, 『西域研究』 2009-4).

18) 644년 설치된 언기도독부는 곧이어 언기 국내의 정세가 혼란해졌기 때문에 그 존속이 매우 짧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19) 『자치통감』 권199, 태종 정관 22년(648) 10월 및 12월 조, 6262~6264쪽.

20) 우전국의 복속 과정은 『新唐書』 권221상, 西域傳上, 于闐 조, 6235쪽; 『冊府元龜』 권426, 將帥部, 招降, 薛萬備 조, 5079쪽 참조. 우전국왕 복도신의 입조는 『자치통감』 권199, 태종 정관 23년 7월 조, 6268~6269쪽 참조.

21) 薛宗正, 「唐四鎮都督府的建置」, 『中國邊疆史地研究』 1992-3.

표 1. 四鎮都督府의 설치

	명칭	설치년도	소속 기미주	설치방식	비고
疏勒國	疏勒都督府	635	15	內附	
焉耆國	焉耆都督府	644	0	征服	
龜茲國	龜茲都督府	648	9	征服	
于闐國	毗沙州	648	5	內附	675년 都督府昇級 10州分置

『구당서』와 『신당서』 지리지에는 소속 기미주의 숫자만 제시되어 있을 뿐 소속 기미주의 명칭이나 위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신당서』 지리지에 사진도독부에 이어서 안서도호부 소속 기미부주로 河西內屬諸胡에 설치한 12州와 2府가 주목된다.²²⁾ 12주는 烏壘州, 和墨州, 溫府州, 蔚頭州, 遍城州, 耀建州, 寅度州, 豬拔州, 達滿州, 蒲順州, 郢及滿州, 乞乍州이고, 2부는 媯塞都督府와 渠黎都督府이다.²³⁾ 이 12주 2부에 대해서는 『신당서』 지리지에서도 단지 명칭만을 나열하였고, 『구당서』 지리지에서는 사진도독부에 뒤이어 바로 西域16都督州府를 기술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며, 다른 사서에서도 그 명칭을 찾아보기 어렵다. 때문에 河西內屬諸胡가 하서 지역으로 內屬한 諸胡인지, 하서에서 內屬한 諸胡인지도 불분명하다.²⁴⁾ 다만 『신당서』 권43하, 지리지, 羈糜州 조에 보이는 몇몇 명칭을 통해 대략 그 위치를 유추해 보려 한다.

22) 河西는 『신당서』 권50, 兵志, 方鎮 조에 “赤水·大斗·白亭·豆盧·墨離·建康·寧寇·玉門·伊吾·天山軍 10개, 烏城 등 守捉 14개를 河西道라 한다”(1328쪽)는 것에 보이고, 지금 甘肅省 서부 酒泉, 張掖, 武威 등의 河西走廊 일대이다.

23) 『신당서』 권43하, 지리지7하, 羈糜州, 隴右道, 安西都護府 조, 1135쪽.

24) 艾衝은 河西內屬諸胡 가운데 일부 府州는 河西 지역 서부의 瓜州都督府 경내에 寄居하였고, 咸亨 원년(670) 토번이 안서도호부를 함락 한 뒤에서 長壽 2년(693) 安西四鎮을 수복한 사이에 출현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艾衝, 『唐代都督府研究—兼論總管府·都督府·節度司之關係』, 西安地圖出版社, 2005, 346쪽).

- A. 安西에서 서쪽으로 柘厥關을 나가 白馬河를 건너 180리를 가면 서쪽으로 俱毗羅磧으로 들어간다. 苦井을 건너 120리를 가면 俱毗羅城에 이른다. 또 60리를 가면 阿悉言城에 이른다. 또 60리를 가면 撥換城에 이르는데, 威戎城이나 ①姑墨州라고도 하고, 남쪽으로 思渾河에 臨한다. 이에 서북쪽으로 撥換河와 中河를 건너면 思渾河와 120리 떨어져 있고 小石城에 이른다. 또 20리를 가면 于闐 境내의 胡蘆河에 이른다. 또 60리를 가면 大石城에 이르는데, 于祝이나 ②溫肅州라 불린다. 또 서북쪽으로 30리를 가면 粟樓烽에 이른다. 또 40리를 가면 拔達嶺을 건넌다. 또 50리를 가면 頓多城에 이르는데, 烏孫의 치소가 赤山城이다. ……
- B. 撥換·碎葉에서 서남쪽으로 渾河를 건너면 180리에 濟濁館이 있는데, 옛 和平鋪이다. 또 옛 達幹城을 지나 120리를 가면 謁者館에 이른다. 또 60리를 가면 據史德城에 이르는데 龜茲의 境내이고 ③鬱頭州라고도 하며 赤河 北岸의 孤石山에 있다. 赤河를 건너 岐山을 지나 340리를 가면 葭蘆館에 이른다. 또 ④達漫城을 지나 140리를 가면 疏勒鎮에 이르는데 남쪽, 북쪽, 서쪽 세 면에 모두 산이 있고 달만성은 水中에 있다. 달만성 동쪽에 있는 漢城 역시 灘上에 있다.
- C. 于闐 서쪽으로 50리에 葦關이 있고 또 서쪽으로 勃野를 지나 서북쪽으로 繫館河를 건너 620리를 가면 ⑤鄯支滿城에 이르는데, 磧南州라고도 한다. 또 서북쪽으로 苦井·黃渠를 지나 320리를 가면 雙渠에 이르는데, 옛 羯飯館이다. 또 서북쪽으로 ⑥半城을 지나 160리를 가면 ⑦演渡州에 이르고 또 북쪽으로 80리를 가면 疏勒鎮에 이른다. …… 우전 서남쪽으로 380리에 ⑧皮山城이 있는데 북쪽으로 姑墨과 접한다. …… 25)
- (※ 밑줄은 편의상 저자가 임의로 河西內屬諸胡 12주와 관련된 부분에 표시한 것이다.)

A-㉠姑墨州는 和墨州일 것이다. 姑墨州라고도 하는 撥換城은 『구당서』 권5, 고종본기하, 咸亨 원년(670) 4월 조에 “吐蕃이 쳐들어와 白州 등 18주를 함락하고 또 우전과 군대를 연합하여 龜茲의 撥換城을 습격해 함락하였다”²⁶⁾는 기록에서 구자국 경내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A-㉡溫肅州는 溫宿州일 것이다. 溫肅州라고도 하는 大石城은 『신당서』 西突厥傳에 “바야흐로 突騎施都督 車鼻施啜 蘇祿을 順國公으로 冊拜하려 하였는데, 돌기시가 이미 撥換과 大石城을 포위한 뒤 四鎮을 탈취하려고 하였다”²⁷⁾는 기록에서도 보인다. B-㉢鬱頭州는 蔚頭州일 것이다. 據史德城이라고도 하며 구자 경내에 있다. 『通典』 邊防典에서도 “大唐 貞觀 23년 將軍 阿史那社爾가 구자를 토벌하여 그 왕을 사로잡아 돌아가고 嗣子 素稽를 세워 왕으로 삼았다. 지금 안서도호부의 치소는 龜茲城이다. …… 지금은 한대의 姑墨, 溫宿, 蔚頭 3국의 땅을 차지하고 있다”²⁸⁾는 데에서도 姑墨州, 溫宿州, 蔚頭州가 구자국 경내에 속함을 확인할 수 있다.

『신당서』 지리지, 기미주 조 이외의 기록에서도 구자도독부에 소속된 기미부주가 확인된다. 烏壘州는 『漢書』 권96상, 西域傳에 “都護의 치소는 烏壘城이다”²⁹⁾라는 기록에서 보인다. 烏壘城은 현재 신장 위구르 자치구 輪臺縣의 동쪽에 위치하는데, 당대에는 구자국의 경내에 속하였다. 渠黎都督府는 渠犁라고도 보이고, 『통전』 변방전에서 “都護의 치소는 烏壘城인데 陽關과 2천 740리 거리이고 渠犁田官과 서로 가깝다”³⁰⁾는 기록에서

25) 『신당서』 권43하, 지리지7하, 羈糜州 조, 1149~1151쪽.

26) 『구당서』 권5, 고종본기하, 咸亨 원년 7월 조, 94쪽.

27) 『신당서』 권215하, 서돌궐전, 6065쪽.

28) 『통전』 권191, 邊防7, 西戎3, 龜茲, 5207쪽.

29) 『漢書』 권96상, 西域傳上, “都護治烏壘城, 去陽關二千七百三十八里, 與渠犁田官相近, 土地肥饒, 於西域爲中, 故都護治焉”(3874쪽).

30) 『통전』 권191, 邊防7, 西戎3, 西戎總序, “都護理烏壘城, 去陽關二千七百四十里, 與渠犁田官相近, 土地肥饒, 於西域爲中, 故理焉”(5193쪽).

확인된다. 또 敦煌 발견 「唐景龍元年(707)張君義勛告」에 “渠黎州之印”이 찍혀있어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문서를 근거로 劉安志는 渠黎州가 구자도독부의 9기미주 가운데 하나이고 구자의 동쪽 경계로 언기와 접한다고 고증하였다.³¹⁾ 따라서 河西內屬諸胡 기미부주의 烏壘州, 和墨州, 溫府州, 蔚頭州, 渠黎都督府는 구자도독부 소속일 가능성이 높다.³²⁾ 다만 渠黎州가 언제 도독부로 승급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³³⁾

B-㉔達漫城은 達滿州이고, 磧南州라고도 하는 C-㉔鄯支滿城은 鄯及滿州일 것이다.³⁴⁾ 遍城州에 대하여 劉統은 C-㉔半城의 오류일 것으로 파악하였다.³⁵⁾ 그런데 張九齡의 『曲江集』에 수록된 현종이 瀚海軍使·北

31) 劉安志, 「敦煌所出張君義文書與唐中宗景龍元年間西域政局之變化」, 『魏晉南北朝隋唐史資料』 21, 2004, 280쪽.

32) 劉統은 이 4개의 기미주와 1개의 도독부에 대해 고증했지만, 소속을 제시하지는 않았다(劉統, 『唐代羈縻府州研究』, 181~183쪽). 반면 王小甫는 河西內屬諸胡의 12주, 2부가 모두 안서사진 소속이었다고 하고, 구자도독부의 9기미주로 烏壘州, 龜茲, 俱毗, 羅城, 白州, 姑墨州, 小石城, 溫肅州, 達干城, 蔚頭州를 제시하였다. 白州의 경우 함형 원년 4월 토변이 백주 등 18주를 함락한 기록과 구자국왕의 姓이 白이며, 구자국이 白山の 남쪽을 다스렸다는 점을 근거로 白州 역시 구자도독부의 소속으로 파악하였다(王小甫, 『唐·吐蕃·大食政治關係史』,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9, 239~241쪽). 그러나 渠黎都督府에 대한 언급은 없고, 위에서 제시한 9기미주의 근거도 다 밝히지는 않았다. 王義康은 이전의 연구 성과를 소개하며 12주2부 중 구자도독부의 소속 기미주로 烏壘州, 姑(和)墨州, 溫肅(府)州, 蔚(郁)頭州, 渠黎都督府를 제시하였다(王義康, 『《新唐書·地理志》羈縻府州補闕』, 『中國文化』 36, 2012, 243쪽). 이 글에서는 왕의강의 견해에 따랐다.

33) 郭聲波과 顏培華는 태종 정관 연간에 설치된 기미부주의 경우 『구당서』와 『신당서』의 지리지에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渠犁州都督府가 보이지 않으므로 당 초기에 설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現宗 개원 7년(719) 안서사진 중 碎葉鎮을 焉耆鎮으로 교체될 때 對吐蕃防禦를 위해 도독부로 승급되었다고 설명하였다(郭聲波·顏培華, 「渠犁·閣甄·婁塞: 唐中期新置西域羈縻都督府探考」, 『中國邊疆史地研究』 2010-1, 91~62쪽).

34) 劉統, 『唐代羈縻府州研究』, 182쪽.

35) 劉統, 『唐代羈縻府州研究』, 182쪽.

庭都護 蓋嘉運에 보낸 論事勅書에서 ‘遍城’이라는 단어가 보인다. 그 내용은 즉 “瀚海軍使·北庭都護 蓋嘉運에게 칙서를 내린다. 突騎施가 흉악하여 우리의 邊陲를 침범해 여름 이래로 疎勒(즉 疏勒)을 에워싸 핍박하였다. 지난번 王斛斯의 表를 받아 보니, 遍城에 주둔한 張羲之 등이 이성에 들어가 점거하고는 누차 돌기시와 싸웠는데, 將士들이 충절을 바치자 逆虜가 격파되어 이미 감히 공격하여 포위하지 못하였으나 군대를 주둔시키고 떠나지 않았다 ……”³⁶⁾고 한다. 이 논사칙서는 『全唐文』에도 같은 내용이 전하는데, 다만 遍城이 ‘邊城’으로 적혀 있다.³⁷⁾ 王小甫는 『曲江集』 기록을 근거로 遍城이 소록도독부의 소속 기미주일 것으로 추정하였다.³⁸⁾ C-㉔半城을 遍城州라고 확정하기는 어려워 두 학자의 견해만 소개하는 데에 그친다. C-㉕演渡州는 寅度州일 것이다. C-㉖皮山城에 대하여 郭声波 등은 皮山城에 설치된 주가 蒲順州이고, 옛 喝盤陀國으로 추정하였다.³⁹⁾

河西內屬諸胡 12주 2부 가운데 『신당서』 기미주 조에 보이는 것을 제외하면 耀建州, 豬拔州, 乞乍州와 媯塞都督府가 남는다. 耀建州는 『冊府元龜』 外臣部, 朝貢 조에서 현종 天寶 12載 정월에 疏勒首領·攝耀建州司馬 裴國良이 金州首領 阿滿兒揭車鼻施와 함께 賀正하러 왔다는 기록

36) 『曲江集』 권10, 勅瀚海使蓋嘉運書 조, “勅瀚海軍使北庭都護蓋嘉運. 突騎施凶逆, 犯我邊陲. 自夏已來, 圍逼疎勒. 頻得王斛斯表, 見屯遍城, 張羲之等入據此城, 屢與之鬪, 將士效節, 逆虜破傷, 已不敢攻圍, 而頓兵不去……”.

37) 『全唐文』 권286, 張九齡4, 敕瀚海軍使蓋嘉運書, 2898쪽.

38) 王小甫, 『唐·吐蕃·大食政治關係史』, 239~241쪽.

39) 郭声波·買提祖農 阿布都克力木, 「毗沙都督府羈縻州之我見——兼評《唐代于闐的羈縻州與地理區劃研究》」, 『西域研究』 2014-2, 42~43쪽. 그런데 蒲順州에 대하여 청말에서 민국시기의 宋伯魯가 撰한 『新疆建置志』 권3에서 『신당서』 지리지의 河西內屬諸胡를 소개하며 “蒲順即蒲類”(民國二年海晏仙館鉛印本, 2쪽)라고 기재되어 있다. 당대의 蒲類는 옛 高昌國의 영역에 속했다. 蒲順州의 위치에 대해서는 사료의 부족으로 확정하지 않고, 『新疆建置志』의 기록을 소개하는 데에 그친다.

에서 확인할 수 있다.⁴⁰⁾ 이 기록을 바탕으로 劉統은 耀建州와 金州가 소록도독부 소속일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나 확정하지는 않았고,⁴¹⁾ 王小甫는 소록도독부의 기미주로 耀建州를 제시하였으나 金州는 언급하지 않았다.⁴²⁾ 乞乍州에 대하여 王小甫는 胡乍와 乞乍는 모두 돌궐어 Ga'jag의 번역이고 그 지역이 소록에 속했다는 R.E.Emmerick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여 소록도독부 소속으로 파악하였다.⁴³⁾

豬拔州는 중국의 國家圖書館에서 새로 입수한 和田出土漢文文書 BH1-1 「某年十一至十二月付糧曆」의 25행 “二百廿一石九斗六合豬拔州(所由可在途 勿地梯)”에서 그 이름이 보인다. 이를 토대로 朱麗雙은 정확한 위치를 고증할 수 없지만, 대략 우전의 동부에 위치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⁴⁴⁾

媯塞는 『讀史方輿紀要』 권65, 陝西14, 諸夷附考, 媯塞國 조에 “媯塞國은 吐火羅의 남쪽에 있다. 塞는 西戎의 別種이다. 媯水에 임하여 거처하기 때문에 이름하였다. 漢 永平 3년 莎車王 賢이 군대로 위협하여 于闐·大宛·媯塞王國을 탈취하였다는 일이 바로 이것이다”⁴⁵⁾라는 기록에 보인다. 媯水는 아무다리야 강을 의미한다. 媯塞에 대하여 郭聲波와 顏培華는 현경 3년(658) 토화라 지역의 16국에 기미부주를 설치할 당시 識匿

40) 『책부원구』 권971, 外臣部, 朝貢4, “(天寶)十二載正月, 疎勒首領·攝耀建州司馬裴國良, 金州首領阿滿兒揭車鼻施, 並來賀正”(11413쪽).

41) 劉統, 『唐代羈糜府州研究』, 180~182쪽.

42) 王小甫, 『唐·吐蕃·大食政治關係史』, 241쪽.

43) 王小甫가 제시한 소록도독부 소속 15기미주는 岐山, 達滿州, 疏勒, 漢城, 遍城州, 耀建州, 豬拔州, 蒲順州, 寅度州, 半城, 雙渠, 黃渠, 苦井, 磧南州, 乞乍州이다(王小甫, 『唐·吐蕃·大食政治關係史』, 241쪽).

44) 朱麗雙, 『唐代于闐的羈糜州與地理區劃研究』, 『中國史研究』 2012-2, 77~78쪽.

45) 『讀史方輿紀要』 권65, 陝西14, 諸夷附考, 媯塞國 조, “媯塞國在吐火羅南塞. 西戎別種也. 臨媯水而居, 因名. 漢永平三年, 莎車王賢以兵威逼, 奪於闐·大宛·媯塞王國, 即此”.

國에 媯水州를 설치하였는데, 媯水州는 媯塞州이고, 이것이 현종 天寶 6 재(747) 식닉국왕 跌失伽延이 勃律 토벌에 종사하다가 전사하자 그 아들을 都督·左武衛將軍에 발탁할 때⁴⁶⁾ 도독부로 승격되었다고 설명하였다.⁴⁷⁾ 『讀史方輿紀要』의 기록과 비교할 때 媯塞都督府는 식닉국에 설치된 것일 가능성이 있지만, 이것이 토화라 지역에 설치된 16국에 분류된 것이 아니라 河西內屬諸胡로 분류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烏壘州·和墨州·溫府州·蔚頭州·遍城州·耀建州·寅度州·達滿州·郢及滿州·乞乍州·豬拔州·蒲順州와 渠黎都督府는 천산산맥 이남에 위치하여 사진도독부의 소속 기미부주 가운데 하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⁴⁸⁾

III. 吐火羅 일대

河西內屬諸胡 기미부주에 뒤이어 『신당서』 지리지에서는 龍朔 원년

46) 『신당서』 권221하, 서역전하, 識匿, “天寶六載, 王跌失伽延從討勃律戰死, 擢其子都督·左武衛將軍, 給祿居藩”(6254쪽).

47) 郭聲波·顏培華, 『渠犁·閼廝·媯塞: 唐中期新置西域羈縻都督府探考』, 95쪽.

48) 王義康은 『신당서』 지리지에 누락된 기미부주 가운데 隴右道の 구자, 비사, 소록도독부에 소속된 기미주를 제시하였다. 즉 구자도독부의 기미주로 烏壘州·姑(和)墨州·溫肅(府)州·蔚(郁)頭州·渠黎都督府를, 비사도독부의 기미주로는 六城質邏州를 제시하였다. 소록도독부의 기미주로는 達滿州, 遍城州, 耀建州, 寅度州, 豬拔州, 蒲順州, 演(寅)渡(度)州, 磧南州, 乞乍州를 제시하였다(王義康, 『《新唐書·地理志》羈縻府州補闕』, 『中國文化』 36, 2012, 243~244쪽). 그러나 다음 장에서 서술할 토화라국의 16도독부주는 도독부 바로 아래에 소속 기미주를 기술하였고, 지리지의 다른 기미부에 속한 기미주 역시 바로 아래에 서술한 점에서 사진도독부의 소속 기미주라 추정되는 12주·2부를 사진도독부의 아래가 아닌 별도의 항목으로 기술하였는가는 의문의 여지가 남는다. 또한 기미주가 아닌 기미부가 사진도독부의 소속이었던지도 검토의 여지가 있다.

(661)에 설치된 서역의 16都督州府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즉 府가 16개, 州가 72개라 하고, 그 原註에 “龍朔 원년 隴州南由令 王名遠을 吐火羅道置州縣使로 삼아 于闐 이서, 波斯 이동의 무릇 16국에 그 王都를 都督府로 삼고, 그 屬部를 州縣으로 삼았다. 모두 88주, 110현, 126軍·府이다”고 한다. 吐火羅道는 현재 파미르 고원 이서, 인더스 강 이북, 아무다리아 강 이남, 이란 이서 일대를 가리킨다. 置州縣使로 간 왕명원이 어떠한 상황에서 使行을 갔는지, 본문과 원주에서 말하는 州의 숫자가 왜 차이가 나는지 등의 문제는 후술하고, 먼저 『신당서』 지리지에 보이는 서역의 16도독부와 그 소속 기미주를 소개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 『신당서』 지리지에 보이는 서역의 16도독부주⁴⁹⁾

	명칭	위치	소속 기미주(위치)		
1	月支 都督府	吐火羅葉護 阿緩城	藍氏州(鉢勃城)	大夏州(縛叱城)	漢樓州(俱祿捷城)
			弗敵州(烏邏印城)	沙律州(咄城)	媯水州(揭城)
			盤越州(忽婆城)	忸密州(烏羅渾城)	伽倍州(摩彥城)
			粟特州(阿捺臘城)	鉢羅州(蘭城)	雙泉州 (悉計蜜悉帝城)
			祀惟州(昏磨城)	遲散州(悉蜜言城)	富樓州(乞施臘城)
			丁零州(泥射城)	薄知州(折面城)	桃槐州(阿臘城)
			大檀州(頽歐伊城具闕達官 部落)	伏盧州(播薩城)	身毒州(乞澀職城)
			西戎州 (突厥施怛駃城)	箴頡州(騎失帝城)	疊仗州(發部落城)
			苑湯州(拔特山城)		
2	大汗 都督府	嚙噠部 活路城	附墨州(弩那城)	奄蔡州(胡路城)	依耐州 (婆多楞薩達健城)
			犁州(少俱部落)	榆令州(烏模言城)	安屋州(遮瑟多城)
			闕陵州(數始城)	碣石州(迦沙紛遮城)	波知州(羯勞支城)
			烏丹州(烏捺斯城)	諾色州(速利城)	迷蠻州(順間城)
			盼頓州(乍城)	宿利州(頽施谷部落)	賀那州(干囉部 落城)

49) 『신당서』 권43하, 지리지7하, 기미주, 隴右道, 安西都護府 조, 1135~1136쪽.

	명칭	위치	소속 기미주(위치)		
3	條支 都督府	訶達羅支國 伏寶瑟頗城	細柳州(護開城)	虞泉州(贊候瑟頗城)	犂薊州(據瑟部落)
			崦嵫州(遏忽部落)	巨雀州(烏離難城)	遺州(遺蘭部落)
			西海州(郝薩大城)	鎮西州(活恨部落)	乾陀州(縛狼部落)
4	天馬 都督府	解蘇國 數曠城	洛那州(忽論城)	東離州 (達利薄紇城)	
5	高附 都督府	骨咄施 沃沙城	五翎州(葛邏健城)	休蜜州(烏斯城)	
6	脩鮮 都督府	罽賓國 遏紇城	毗舍州(羅漫城)	陰米州(賤那城)	波路州(和藍城)
			龍池州(遺恨城)	烏弋州 (塞奔你邏斯城)	羅羅州(濫健城)
			檀特州(半製城)	烏利州(勃逸城)	漢州(鶻換城)
			懸婁州(布路健城)		
7	寫鳳 都督府	帆延國 羅爛城	嶸谷州(肩捺城)	冷淪州(侯麟城)	悉萬州(縛時伏城)
			鉗敦州 (未臘薩旦城)		
8	悅般州 都督府	石汗那國 豔城	雙靡州(俱蘭城)		
9	奇沙州 都督府	護時健國 遏蜜城	沛隸州(漫山城)	大秦州(奴蜜城)	
10	姑墨州 都督府	怛沒國 怛沒城	栗弋州(弩羯城)		
11	旅獒州 都督府	烏拉喝國 摩竭城			
12	崑墟州 都督府	多勒建國 低寶那城			
13	至拔州 都督府	俱蜜國 褚瑟城			
14	烏飛州 都督府	護蜜多國 摸達城	鉢和州(娑勒色訶城)		
15	王庭州 都督府	久越得健國 步卻城			
16	波斯 都督府	波斯國 疾陵城			

『구당서』 지리지에는 대략 같은 내용이 전하지만, 도독부주의 위치와 그 소속 기미주의 숫자만 전하고 기미주의 명칭은 거의 없다. 위 『신당서』 지리지와 다른 점은 다음과 같다. 즉 月支都督府는 月氏都督府로 따

火羅國 遏換城에 설치, 소속 기미주는 24로 『신당서』보다 1개가 적다. 월지는 月支, 月氏, 月氐 등으로 표기하기도 한다. 條支都督府의 소속 기미주는 8로 『신당서』보다 1개가 적다. 天馬都督府는 大馬都督府라 하고, 소속 기미주가 3으로 『신당서』보다 1개가 많다. 高附都督府의 위치는 妖沙城이고 소속 기미주는 3으로 『신당서』보다 1개가 더 많다. 脩鮮都督府는 소속 기미주가 11로 1개가 더 많다. 寫鳳都督府는 그 위치가 失苑延國의 伏戾城으로 전한다. 奇沙州都督府부터 王庭州都督府까지는 도독부가 아닌 단지 州로 표기되어 있다. 奇沙州의 소속 기미주 沛隸州가 沛薄州로 전한다. 姑墨州都督府는 和默州로, 그 위치는 怛沒國 怛城으로 전한다. 旅獒州都督府는 掖撒州로 전한다. 崑墟州都督府는 그 위치가 護密多國으로 전한다. 護密多國은 鳥飛州都督府가 설치된 국가이므로 오자일 가능성이 있다. 至拔州都督府는 至披州로, 그 위치가 俱密國 措瑟城으로 전한다. 鳥飛州都督府는 그 위치가 護密多國 摸廷城으로 전한다. 波斯都督府는 그 위치가 陵城으로 전한다.⁵⁰⁾ 이렇게 이름이 다른 것은 현지의 지명을 음譯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소속 기미주의 숫자 역시 『구당서』와 『신당서』의 지리지, 『당회요』의 기록이 서로 다르다. 이는 기록의 오류일 수도 있으나 시기에 따른 소속 기미주의 增感으로 인해 생긴 차이일 것이다.⁵¹⁾ 『資治通鑑』 권200, 고종

50) 『구당서』 권40, 地理志3, 河西道, 西域十六都督州府 조, 1649~1650쪽. 또한 『太平寰宇記』 권156, 隴右道7, 安西大都護府, 西域十六都督州府 조에서도 대략 같은 내용이 전한다.

51) 姜琦 역시 도독부주의 숫자에 대한 기록들이 다른 것은 도독부주의 숫자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고, 이는 서로 다른 시기의 도독부주의 정황을 반영한다고 설명하였다(姜琦, 『隋唐의 西北邊疆定策 研究』,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83~84쪽). 그러나 이와 다른 견해도 있다. 郭聲波는 기미도독부와 내지의 正都督府에는 모두 本州가 존재하는데, 단지 때때로 도독부와 혼동하기 때문에 소속 기미주의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소속 기미주의 숫자에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郭聲波·顏培華, 『渠犁·閣甌·焉塞: 唐中期新置西域羈糜都督府探考』, 38쪽).

龍朔 원년 6월 조에서는 16개 국가에 8도독부, 76주라 기록하고 있다. 『신당서』 지리지에서 悅般州부터 王庭州까지 8개를 州都督府라 칭하고 그 나머지를 단지 都督府라 표현한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자치통감』에서 8도독부라는 것은 단순히 기록의 오류라기보다 이를 구분한 것이거나 이 8개 주는 이후에 도독부로 승급되었을 가능성도 있다.⁵²⁾

표 3. 龍朔 원년 설치 서역 16국 기미부주 소속 州·縣·軍·府의 숫자⁵³⁾

	都督府	州	縣	軍·府	비고
舊唐書	16	80	110	126	
新唐書	16	72			本文
	16	88	110	126	原註
唐會要	16	80	110	126	
資治通鑑	8	76	110	126	
通典	16	80	100	126	
法苑珠林	9	80	133	147	

52) 『자치통감』의 考異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通鑑』言置都督府八者，蓋謂月氏·大汗·條支·天馬·高附·脩鮮·寫鳳·波斯八都督府，餘悅般等八州都督府不預也”(『자치통감』 권200, 高宗 龍朔 원년 6월 조, 6324~5325쪽). 伊瀨仙太郎은 8도독부를 州라고 표현 한 것은 이 8도독부가 다른 도독부보다 늦게 府의 명칭을 가진 결과라고 설명하였다(伊瀨仙太郎, 『中國西域經營史研究』, 巖南堂書店, 1968, 212~213쪽).

53) 『당회요』 권73, 安西都護府 조, 1568~1570쪽; 『신당서』 권43하, 지리지7하, 羈縻州, 隴右道, 安西都護府 조, 1135쪽; 『구당서』 권40, 地理志3, 河西道, 西域十六都督州府 조, 1649~1650쪽; 『資治通鑑』 권21, 高宗 龍朔 원년 6월 조; 『통전』 권193, 邊防9, 西戎5, 吐火羅 조, 5277쪽. 또한 『法苑珠林』 권29, 感通篇21, 述意部1, “奉詔譯經，兼勅令撰出西域行傳一十二卷，至今龍朔三年翻譯經論，未似奘師游國博聞翻譯最多，依奘師行傳，王玄策傳，及西域道俗，任土所宜非無靈異，敕令文學士等總集詳撰，勒成六十卷，號爲西國志，圖畫四十卷合成一百卷，從於闐國至波斯國已來，大唐總置都督府及州縣折冲府，合三百七十八所，九所是都督府，八十所是州，一百三十三所是縣，一百四十七所是折冲府”(大正新脩大藏經 T53, no.2122).

토화라 지역의 16개 국가에 설치된 기미부주는 그 설치시기가 『구당서』와 『신당서』 지리지, 『당회요』, 『자치통감』, 『통전』 등에서 용삭 원년(661)으로 전한다. 이 16도독주부가 설치될 수 있었던 것은 당조가 永徽 2년(651) 초부터 현경 2년(657)년 말까지 무려 7여 년 동안 서역을 진동시켰던 阿史那賀魯를 평정했기 때문이다. 아사나하로는 정관 22년(648) 부락을 이끌고 당에 귀순한 뒤 崑丘道行軍總管으로서 구자를 공격하고, 다음 해 2월 瑤池都督에 제수되었다. 그러나 당과 아사나하로의 관계는 태종의 사망과 함께 단절되었다. 고종 영휘 2년(651) 초 아사나하로가 당을 이반하여 서돌궐을 규합하고, 천산 남북과 昭武九姓 일대에 이르는 西域諸國의 대부분을 장악한 것이다.⁵⁴⁾ 이에 동돌궐, 토욕혼, 고창국, 구자국 등을 멸하며 서역 지배의 토대를 구축해 가던 당조도 서역에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당조는 그해 7월 아사나하로가 庭州를 침략하자 左武衛大將軍 梁建方과 右驍衛大將軍 契苾何力을 弓月道行軍總管으로 삼아 토벌하게 하였으나 아사나하로는 잡지 못하고, 다음해 정월 그의 협력 세력인 處月을 격퇴하였을 뿐이었다.⁵⁵⁾ 제2차 아사나하로 토벌군은 영휘 6년(655) 5월에 조직되어 蔥山道行軍大總管 程知節이 통솔했는데,⁵⁶⁾ 그 역시 다음 해 현경 원년 아사나하로와 싸웠으나 사로잡지 못하고 돌아왔다.⁵⁷⁾ 현경 2년(657) 윤정월 伊麗道行軍總管 蘇定方을 필두로 제3차 토벌

54) 아사나하로가 이반한 원인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다. 이에 대하여 전영은 아사나하로가 서돌궐 부락을 통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조에게서 可汗에 책봉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원래 지냈던 葉護도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추정하였다(전영, 『당대 전기 대외관계에 관한 연구』, 경인문화사, 2018, 85~86쪽).

55) 『신당서』 권3, 고종본기, 영휘 2년 7월 조, 53쪽; 同書, 영휘 3년 정월 조, 54쪽.

56) 『구당서』 권4, 고종본기상, 영휘 6년 5월 조, 74쪽.

57) 『구당서』 권4, 고종본기상, 현경 원년 8월 및 12월 조, 74쪽. 정지철이 아사나하로를 토벌한 일은 그의 묘지명 〈程知節墓誌〉와 그 아들 〈程處俠墓誌〉에서도 보인다.

군이 조직되었고, 그해 말이 되어서야 아사나하로를 사로잡아⁵⁸⁾ 다음해 11월 태종의 昭陵에 獻俘되었다.⁵⁹⁾ 아사나하로를 진압한 직후 당조는 서돌궐 지역에 崑陵·蒙地 두 羈縻 都護府를 설치하였다.⁶⁰⁾

현경 연간 당조는 아사나하로의 난을 진압하고, 서돌궐 지역에 기미도호부를 설치한 것을 기반으로 서역의 각국에 사행을 보내 기미부주를 설치하였다. 16도독부주의 설치에 대해 『당회요』 권73, 安西都護府 조에

용삭 원년 6월 17일 吐火羅道에 州縣을 설치하는데, 사신 王名遠이 『西域圖記』를 바치고 아울러 于闐 이서, 波斯 이동의 16국에 都督府 및 80州, 110縣, 126軍府를 설치하고 토화라국에 碑를 세워 聖德을 기록하자고 청하니, 조서를 내려 이를 따랐다.⁶¹⁾

고 한다. 『통전』 邊防典에서는 현의 숫자가 100으로 기록된 것 이외에는 『당회요』의 기록과 동일한 내용이 전한다.⁶²⁾ 위 왕명원은 『당회요』 권99, 吐火羅國 조에도 보인다.

3년 그 葉護 那史烏涇波가 表를 받들어 책립을 알렸다. 고종이 置州縣使 王名遠을 보내 그 나라에 이르러 所理 阿緩大城을 月氏都督府로 삼고 그 小

58) 『신당서』 권3, 현경 2년 윤정월 조 및 12월 조, 57~58쪽.

59) 『구당서』 권4, 고종본기상, 현경 3년 11월 조, 78~79쪽.

60) 당대의 도호부는 변경에 설치된 이민족 관리 및 변경 방어 기구이다. 그 장관인 도호는 관할지역의 이민족을 위무하고 외적의 침입을 평정하며 반란을 정벌하였다. 도호는 조정에서 임명하여 파견되었는데, 현경 연간 설치된 곤륜·몽지도호부는 可汗으로 책립된 이민족의 수장을 도호로 삼아 그 지역을 통치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기미적’ 성격을 지녔을 것으로 생각된다.

61) 『당회요』 권73, 安西都護府 조, 1568쪽.

62) 『통전』 권193, 邊防9, 西戎5, 吐火羅 조, 5277쪽.

城을 24州로 나누어 烏涇波를 都督으로 삼았다. 5년 烏涇波가 아들 伊室達官 弩를 보내 朝獻하였다. 龍朔 원년 烏涇波를 使持節·月氏等二十五州諸軍事·月氏都督으로 삼았다.⁶³⁾

위 사료에 의하면, 왕명원이 置州縣使가 되어 토화라로 간 것은 용삭 원년 이전의 일이다. 유사한 내용이 『신당서』西域傳에 “현경 연간 그 阿緩城을 月氏都督府로 삼고 小城을 24州로 쪼개어 왕 阿史那를 都督에 제수하였다. 2년 뒤 아들을 보내 來朝하고 곧이어 또 磻磻鎧樹를 헌상하였는데 높이가 3尺이었다”⁶⁴⁾고 한다. 『당회요』 토화라국 조에서 말하는 3년이라는 것은 『신당서』 서역전과 비교해 볼 때 현경 3년일 것이다.

또 위 사료에서 현경 3년 소성을 24주로 삼았고, 2년 뒤 현경 5년 烏涇波가 받은 月氏等二十五州諸軍事의 관함을 비교하면 소속 기미주의 숫자가 2년 뒤 1개가 더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소속 기미부주 숫자의 증감 때문에 『신당서』 지리지에서는 25주, 『구당서』 지리지에서는 24주라고 기록한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월지도독부 이하 大汗·條支·天馬·高附都督府에 대해서는 용삭 원년 설치했다는 것 이외에는 다른 사료가 보이지 않지만, 그 다음 계빈국에 설치된 脩鮮都督府는 『신당서』 서역전에 “顯慶 3년 그 땅을 脩鮮都督府로 삼았다. 龍朔 연간 초에 그 왕을 脩鮮等十一州諸軍事·脩鮮都督에 배수하였다”⁶⁵⁾고 전한다. 寫鳳都督府가 설치된 帆延國은 望衍, 梵衍那라고 하는데, 동남쪽으로는 麗賓과 떨어져 있고 토화라와 경계를 접하였다. 정관 연간 초에는 사신을 보내 당에 입조하였다. 『신당서』 서역전에 의하면, 현경 3년 당조가 범연국의 王治 羅爛城을 도독부로 삼고 縛時城

63) 『당회요』 권99, 吐火羅國 조, 2103쪽.

64) 『신당서』 권221하, 서역전하, 吐火羅 조, 6252쪽.

65) 『신당서』 권221상, 서역전상, 麗賓 조, 6241쪽.

을悉萬州로 삼아 그 왕 荀을 寫鳳州都督·管內五州諸軍事에 제수하였다.⁶⁶⁾ 鳥飛州都督府이 설치된 護蜜多國은 達摩悉鐵帝, 鑊侃이라고도 한다. 호밀다국은 安西四鎮이 토화라로 들어가는 길의 입구인데 예전에는 吐蕃에 役屬하였다. 왕이 거처하는 塞迦審城은 북쪽으로 烏滸河와 맞닿아 있었다. 『신당서』 서역전에 의하면, 현경 연간 그 왕 沙鉢羅頡利發을 刺史로 삼았다고 한다.⁶⁷⁾ 『신당서』 서역전에서 수선도독부와 사봉도독부의 설치를 현경 3년, 조비주도독부를 현경 연간이라고 한 것에 의하면, 왕명원이 토화라로 使行을 간 것은 용삭 원년이 아닌 그 이전, 현경 연간(656~661)일 것이다.⁶⁸⁾

波斯都督府는 『신당서』 서역전에 의하면 앞의 월지·사봉·조비주도독부와 달리 용삭 연간에 설치된 것으로 전하는데,⁶⁹⁾ 『자치통감』 용삭 2년(662) 정월 조에서 “파사도독 비로사를 波斯王으로 삼았다”⁷⁰⁾고 하므로 용삭 원년 6월에 설치되어 다음해 정월 비로사가 파사도독에 봉해진 것으로 생각된다. 파사국은 파사도독부가 설치되기 이전 영휘 연간에도 당과 사신 왕래가 있었다. 파사국의 왕자 비로사는 大食의 공격으로 영휘 5년(654) 4월 토화라로 도망한 뒤 사신을 보내 고종에게 어려움을 알렸다.⁷¹⁾ 그러나 고종은 멀어서 군대를 보낼 수 없다고 거절하며 사자를 돌려보냈다. 파사국은 용삭 연간 초에 또 대식에게 침략을 받았는데, 당시

66) 『신당서』 권221상, 서역전상, 謝颺 조, 6254쪽.

67) 『신당서』 권221하, 서역전하, 識匿 조, 6255쪽.

68) 대부분의 학자들 역시 영휘 연간은 阿史那賀魯가 서역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16都督州府의 설치를 顯慶 3년(658)의 일로 파악한다. 吳玉貴, 「唐代西域羈縻府州建置年代及其與唐朝的關係」, 57~58쪽; 劉統, 『唐代羈縻府州研究』, 132쪽.

69) 『신당서』 권221하, 서역전하, 波斯 조, 6259쪽.

70) 『자치통감』 권200, 고종 용삭 2년 정월 조, 6326쪽.

71) 비로사가 토화라로 도망한 것은 영휘 5년의 일이다. 『자치통감』 권199, 고종 영휘 5년(654) 4월 조, 6285쪽 참조.

는 천자가 막 사자를 보내 서역에 이르러 州縣을 나누어 설치할 때였으므로 疾陵城을 波斯都督府로 삼고, 卑路斯를 都督으로 삼았던 것이다.⁷²⁾ 그렇다면 현경 연간 당과 파사국의 관계는 어떠하였을까. 이는 淸 光緒帝 말 洛陽 교외에서 출토된 〈阿羅憾墓誌〉에서 엿볼 수 있다.

大唐故波斯國大酋長·右屯衛將軍·上柱國·金城郡開國公·波斯君丘의 묘지명.

君은 諱가 阿羅憾이고 명망 있는 씨족으로 波斯國 사람이다. 顯慶 연간에 高宗天皇大帝가 功績에 칭송이 있어 명성이 [西域]에 들리자 사신을 보내 불러 이곳(즉 당)에 이르게 하여 곧 將軍北門[右]領使에 제수하니, 정성을 다해 모시었도다. 또 拂林國諸蕃招慰大使에 충임하고 아울러 拂林西界에 碑를 세우게 하니, 우뚝 솟아있도다.⁷³⁾

아래감은 파사국 왕족의 방계로 호스로우 2세(Khusrau II)의 손자로 추정된다. 위 사료에 보이는 拂林西界에 碑를 세우게 한 일과 앞서 『당회요』에서 제시한 왕명원이 토화라국에 碑를 세워 聖德을 기록하자고 한 일은 모두 당조가 서역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가는 것을 잘 보여준다.⁷⁴⁾ 왕명원이 세운 비와 아래감이 세운 비가 동일한지 여부는 사료의 부족으로 확정할 수 없지만, 이 사건은 현경 연간 당조가 총령 이서로 사신을 보내고 또 서역의 국가에 사신을 초청하며 왕래를 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72) 『신당서』 권221하, 서역전하, 파사 조, 6259쪽.

73) 『石刻史料新編 第一輯』第11卷, “大唐故波斯國大酋長·右屯衛將軍·上柱國·金城郡開國公·波斯君丘之銘. 君諱阿羅憾, 族望, 波斯國人也. 顯慶年中, 高宗天皇大帝以功績有稱, 名聞[西域], 出使召至來此, 即授將軍北門[右]領使, 侍衛驅馳. 又充拂林國諸蕃招慰大使, 并于拂林西界立碑, 峨峨尚在”(8187쪽).

74) 馬小鶴, 『唐代波斯國大酋長阿羅憾墓志考』, 榮新江·李孝聰 主編, 『中外關係史—新史料與新問題』, 科學出版社, 2004, 99~146쪽.

당조가 서역의 국가와 사신을 왕래했던 이유는 왕명원의 직책에서와 같이 총령 이서의 땅에 기미정책을 시행하고 기미부주를 설치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이는 또한 고종이 영휘 연간에는 비로사의 어려움을 외면하였지만 용삭 연간에는 태도를 바꾸어 사자를 파견한 일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파사국뿐 아니라 영휘 연간 중앙아시아河中 지역의 昭武九姓 국가들이 대식의 침입을 지속적으로 당에 알렸던 것으로 보아 당조는 이미 대식의 東進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다.⁷⁵⁾ 그러나 당조는 영휘 연간 당시에는 아사나하로 때문에 상대적으로 당과 먼 곳에 위치한 소무구성 일대나 그 이서까지 돌아볼 여력이 없었으므로 거리가 멀다는 핑계로 군대파견을 거절하다가 아사나하로를 평정한 뒤 다시 서역을 호령할 기반을 다짐에 따라 동진해 오는 대식을 고려하여 그들의 동향을 살피고, 총령 이서 지역을 기미부주로 삼아 당과 대식의 완충지대로 삼기 위해 사신을 파견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⁷⁶⁾

IV.河中과 天山山脈 이북

『신당서』 지리지에서는 안서도호부의 소속 기미부주로 天山 산맥 이남에 설치된 四鎮都督府, 河西內屬諸胡의 12州와 2府, 葱嶺 이서 吐火羅 지역에 설치한 16都督州府를 나열하였다. 그런데 총령 이서에서 파사 이

75) 영휘 연간 米國이 대식에게 격파되었고, 康國이 당에 자주 사자를 보내 대식이 공격을 하고 세금을 징수해 간다고 알렸다. 용삭 연간(661-663)에는 대식이 拂菻을 격파하였다. 『신당서』 권221하, 서역전하, 米 조, 6247쪽; 『당회요』 권99, 康國 조, 2105쪽; 『구당서』 권198, 서용전, 대식국 조, 5316쪽 참조.

76) 파사국 등 총령 이서 지역에 대한 고종의 태도 변화는 이진선, 「唐 高宗代 碎葉鎮設置와 西域支配」, 『中國史研究』 96, 2015, 55~57쪽 참조.

동 지역의 16국 기미부주에는 중앙아시아 河中 지역에 있는 昭武九姓 등에 설치된 기미부주가 누락되어 있다. 이 지역에 설치된 기미부주는 리지에는 보이지 않지만, 『구당서』와 『신당서』의 西域傳에 단편적으로 그 기록이 전한다. 소무구성은 康國, 安國, 曹國, 石國, 米國, 何國, 火尋國, 戊地國, 史國 등으로 시르다리아와 아무다리아 두 강 유역에 위치하였다. 본래 祁連 북쪽의 昭武城에 거주하였는데, 돌궐에게 쫓겨 葱嶺에 의지하다가 두 강 유역에 자리한 것이다. 이들은 모두 昭武를 氏로 삼았기 때문에 소무구성이라 일컬었다.⁷⁷⁾

강국은 고조 무덕 7년(624) 사신을 보내 방물을 바쳤고, 태종 정관 원년(627)에도 何國과 함께 사신을 보내 朝貢하였다.⁷⁸⁾ 정관 5년(631)에는 신하가 되기를 청하기도 했는데, 성사되지는 않았다.⁷⁹⁾ 강국에는 다음 고종대에 이르러서야 기미부주가 설치되었다. 『당회요』 권99, 康國 조에

顯慶 3년 고종이 果毅 董寄生을 보내 그들이 거처하는 城에 康居都督府를 열치하고 그 왕 拂呼縵을 도독으로 삼았다.⁸⁰⁾

라고 한다. 『책부원구』 外臣部에서도 현경 3년 고종이 康居府를 세우고, 불호발을 도독으로 삼았다고 전한다.⁸¹⁾ 『신당서』 서역전에서는 강거도독

77) 『신당서』 권221하, 서역전하, 康 조, 6243쪽.

78) 『책부원구』 권970, 外臣部, 朝貢3, “(武德)七年……六月, 康國·吐谷渾·及西突厥莫賀咄可汗. 七月, 百濟·康國·曹國, 並遣使朝貢. 靺鞨渠帥阿固郎來朝”(11397쪽); 同書, “五月, 何國·康國. 六月, 新羅. 十月, 西突厥. 十一月, 新羅, 並遣使朝貢”(11397쪽). 이후에도 강국은 정관 9년 당에 사자를 바치는 등 조공과 사신 파견 등을 하였다.

79) 『신당서』 권221하, 서역전하, 康 조, 6243쪽.

80) 『당회요』 권99, 康國 조, 2105쪽.

81) 『책부원구』 권996, 外臣部, 繼襲1, “康國, 本康居之苗裔. 唐武德七年, 其王曰屋本支. 顯慶三年, 其王曰拂呼髮. 是年, 高宗列其地爲康居府, 以拂呼髮爲都督”(11365쪽).

부의 설치시기를 고종 영휘 연간(650~656)이라고 하였지만,⁸²⁾ 당시는 아사나하로의 난이 아직 평정되기 전이고, 앞서 王名遠이 현경 3년 무렵부터 용삭 원년을 전후로 토화라의 16개 국가에 使行을 다녀왔으므로 현경 3년에 설치된 것이 타당할 것이다.⁸³⁾ 현경 3년 동기생의 使行으로 설치된 다른 기미부주는 史國의 陟沙州가 있다. 『당회요』 권99, 史國 조에 “果毅 董寄生을 파견하여 그 왕도에 陟沙州를 열치하고 그 왕 昭武失阿曷을 자사로 삼았다”⁸⁴⁾고 한다. 史國은 佉沙 혹은 羯霜那라고도 한다. 토화라와 사국의 사이에 鐵門山이 있는데 이 협곡을 경계로 삼았다.⁸⁵⁾ 아쉽게도 소무구성 지역에서 활동한 동기생의 행적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현존하는 자료에서 동기생의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매우 드물고, 후대의 『元一統志』 권10, 湖廣等處行中書省, 歸州 조에 “唐元皇帝像과 唐 銅鍾이 郡의 북쪽 龍興觀內에 있다. ……바로 당 儀鳳 2년(677) 歸州刺史 董寄生이 조상한 것이다”⁸⁶⁾라는 기록에서 고종 의봉 연간 동기생이 귀주자사였음이 확인된다.

『신당서』 서역전에는 강국과 사국 이외의 소무구성 지역에 설치된 기미부주가 전한다. 현경 연간(656~660) 安國에는 치소 阿濫을 安息州로 삼아 그 왕 昭武殺을 자사에 임명하였고, 小國이라고도 하는 東安國에는 雙斤을 木鹿州로 삼아 그 왕 昭武閉息을 자사로 삼았다.⁸⁷⁾ 石國은 柘支,

82) 『신당서』 권221하, 서역전하, 康 조, 6244쪽.

83) 許序雅, 『唐代絲綢之路與中亞史地叢考—以唐代文獻爲研究中心』, 商務印書館, 2015, 67쪽.

84) 『당회요』 권99, 史國, 2109쪽.

85) 『신당서』 권221하, 서역전하, 史 조, 6247~6248쪽.

86) 『元一統志』, 권10, 湖廣等處行中書省, 歸州, 古蹟, 中華書局, 1966, 700쪽.

87) 『신당서』 권221하, 서역전하, 安 조, “顯慶時, 以阿濫爲安息州, 即以其王昭武殺爲刺史, 雙斤爲木鹿州, 以其王昭武閉息爲刺史”(6245쪽). 안식주의 설치에 동안국 조에 보이지만, 阿濫은 안국의 도성이므로(E. Chavannes 저, 馮承鈞 譯, 『西突厥史料』, 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2016, 103쪽) 안국에 설치한 것으로 고쳤다.

柘折, 혹은 赭時 등으로 불리며, 漢代 大宛의 北鄙였다. 석국 역시 현경 3년 瞰羯城을 大宛都督府로 삼고 그 왕 瞰土屯攝舍提於屈昭穆을 都督으로 삼았다. 米國은 彌末, 弭秣賀라고도 하고, 북쪽으로 강국과 100리 거리에 있었다. 그 군주의 치소는 鉢息德城인데, 영휘 연간 大食에게 격파되었다. 현경 3년 그 땅을 南謐州로 삼고 군주 昭武開拙을 자사로 삼았다.⁸⁸⁾ 何國은 屈霜你迦 혹은 貴霜匿이라고도 한다. 『신당서』 지리지에는 영휘 연간에 당군이 서방을 토벌한다는 소식을 듣고 군량을 보내고 싶다고 한 일에 뒤이어 그 땅을 貴霜州로 삼고 군주 昭武婆達地를 자사에 제수하자, 사자 鉢底失을 보내 사례하였다고 전한다.⁸⁹⁾

寧遠 또한 河中 지역에 위치하며 본래는 拔汗那 혹은 鑿汗으로 불렸다. 정관 연간에 왕 契苾이 서돌궐 瞰莫賀咄에게 살해되자 阿瑟那鼠匿이 왕의 거처인 西韃城을 탈취하였다. 아슬라서닉이 사망한 뒤에는 아들 遏波之가 契苾의 형의 아들 阿了參을 왕으로 세워 치소를 呼悶城에 두고 갈파지 자신은 치소를 渴塞城으로 하였다. 현경 연간 초에 갈파지가 사자를 보내 당에 조공하자 고종이 후하게 대접하였고, 현경 3년 渴塞城에 休循州都督府를 두고 阿了參을 刺史로 삼았다.⁹⁰⁾

지리지나 서역전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天山山脈 이북 碎葉水 유역의 碎葉에도 기미주가 설치되었다. 고종과 무측천의 합장릉인 乾陵에는 태종과 고종 시기 당과 우호적 외교관계를 맺거나 그 영향력 하에 있었던 주변국의 국왕이나 왕자, 사절 등 인물의 석상이 세워져 있다. 이 乾陵番

88) 『신당서』 권221하, 서역전하, 米 조, 6247쪽.

89) 『신당서』 권221하, 서역전하, 何 조, “或曰屈霜你迦, 曰貴霜匿, 即康居小王附墨城故地. 城左有重樓, 北繪中華古帝, 東突厥·婆羅門, 西波斯·拂菻等諸王, 其君旦詣拜則退. 貞觀十五年, 遣使者入朝. 永徽時上言, ‘聞唐出師西討, 願輸糧于軍.’ 俄以其地爲貴霜州, 授其君昭武婆達地刺史. 遣使者鉢底失入謝”(6247쪽).

90) 『신당서』 권221하, 서역전하, 寧遠 조, 6250쪽.

臣石像 중 소그드인 安車鼻施의 관명이 碎叶州刺史로 기록되어 있다.⁹¹⁾ 그렇다면 쇄엽주는 언제 설치된 것인가.

쇄엽은 서돌궐이 머물던 곳이다. 서돌궐은 十姓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동쪽의 5咄陸部와 서쪽의 5弩失畢部로 나누어져 있었다. 현경 2년(657) 말 아사나하로를 진압한 당조는 그 전쟁에 공을 세운 5弩失畢部の 阿史那步真을 繼往絕可汗으로 삼고, 5咄陸部の 阿史那彌射를 興昔亡可汗으로 삼았다. 『당회요』 권73, 安西都護府 조에

[현경 2년] 11월 그 땅을 나누어 濛池·崑陵 2도호부를 설치하고, 阿史那彌射를 崑陵都護, 阿史那步真을 濛池都護로 삼았다. 그 달 17일에 또 그 種落을 나누어 州縣을 列置하였다. 處木昆部를 匍廷都督府, 突騎施 索葛莫賀部를 嚙鹿都督府, 突騎施 阿利施部를 梨山都督府, 胡祿屋闕部를 鹽泊都督府, 攝舍提噉部를 雙河都督府, 鼠尼施處半部를 鷹娑都督府로 삼았다. 그에 役屬된 諸胡國에도 모두 州府를 설치하여 서쪽으로 波斯에 달하였는데, 모두 安西[都護府]에 예속되었다.⁹²⁾

라고 한다. 서돌궐의 諸胡에 모두 기미부주를 설치한 것이다. 이는 『구당서』 突厥傳, 阿史那彌射 조에 “서역이 모두 평정되었다. 賀魯 父子가 이미 사로잡혔으니 여러 우두머리 부락에 모름지기 統領이 있어야 한다. 卿은 일찍이 조정에 귀순해 오래도록 宿衛에 참여하여 깊이 恩義를 느끼고 法式을 아주 잘 알았다. 이 때문에 경 등을 각각 1부의 可汗으로 책립하였던 것이다. 다만 諸姓이 하로를 따른 것은 본래의 情이 아니니 경 등이 바로 도착하면 즉시 항복하고 또한 赤心이 당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91) 陳國燦, 「唐乾陵石人像及其銜名的研究」, 『文物集刊』 2, 文物出版社, 1980, 195~196쪽.

92) 『당회요』 권73, 安西都護府, 1567쪽.

경은 마땅히 盧承慶 등과 함께 部落의 크고 작음에 준하여 지위의 고하에 따라 刺史 이하의 官을 제수하라”⁹³⁾고 한 것에서도 흥성막가한 아사나미사와 노승경 등이 서돌궐 영역에 기미부주를 설치한 것을 알 수 있다. 소무구성 일대와 서돌궐 영역에 모두 현경 3년을 전후로 기미부주가 설치된 것으로 보아 쇄엽주 역시 이와 함께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위에서 나열한 곤릉·몽지 두 도호부에 소속된 기미부주는 『당회요』에서는 안서도호부에 예속되어 있다고 했지만, 『신당서』 지리지에 의하면 北庭都護府에 예속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⁹⁴⁾ 북정도호부는 武則天 長安 2년(702) 무렵에야 설치되었다. 서돌궐 영역에 설치된 기미부주는 설치 초기에는 안서도호부의 관할이었지만, 북정도호부가 설치된 이후에 그 관할권이 넘어갔을 것으로 생각된다.⁹⁵⁾ 또한 용삭 연간까지는 아직 서돌궐 세력이 와해되기 이전이므로 당조의 천산 이북 통제는 강하지 않았고, 곤릉과 몽지를 도호부라고 하였지만 그 실상은 기미적 성격이 강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93) 『구당서』 권194하, 突厥傳下, 阿史那彌射 조, “遂使凶渠畏威, 夷人慕德, 伐叛柔服, 西域總平. 賀魯父子既已擒獲, 諸頭部落須有統領. 卿早歸闕庭, 久參宿衛, 深感恩義, 甚知法式, 所以册立卿等各爲一部可汗. 但諸姓從賀魯, 非其本情, 卿等纔至即降, 亦是赤心向國. 卿宜與盧承慶等準其部落大小, 位望高下, 節級授刺史以下官” (5188~5189쪽).

94) 『신당서』 권43하, 지리지7하, 隴右道, 北庭都護府 조, 1130~1131쪽.

95) 북정도호부 설치 이전 천산 이북에는 서돌궐 가한을 도호로 책립한 곤릉·몽지도호부 이외에 金山都護府가 존재하였다. 이 금산도호부는 대략 660년대 중반부터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천산 이북의 관할권과 관련된 안서도호부와 금산도호부의 관계 및 금산도호부와 북정도호부의 연관성은 차후의 과제로 남긴다. 또한 곤릉·몽지도호부가 안서도호부나 북정도호부에 예속되었다고 할 경우 도호부가 도호부를 관할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표 4. 顯慶 연간 설치된 河中 및 천산 이북의 기미부주

국가	명칭	도독·자사	비고
康	康居都督府	都督 拂呼縵	
史	陸沙州	刺史 昭武失阿曷	
安	安息州	刺史 昭武殺	
東安	木鹿州	刺史 昭武閉息	
石	大宛都督府	都督 曷土屯攝舍提於屈昭穆	
米	南謐州	刺史 昭武開拙	
何	貴霜州	刺史 昭武婆達地	
寧遠	休循州都督府	刺史 阿了參	
碎葉	碎葉州	刺史 安车鼻施	
西突厥	5咄陸部	濛池都護府	繼往絕可汗 阿史那步真
	5弩失畢部	崑陵都護府	興昔亡可汗 阿史那彌射

서역에 기미부주를 설치하는 일은 현경 3년에 완수되지 않았다. 앞서 『신당서』 지리지나 서역전에 기재된 국가 뿐 아니라 제시되지 않은 국가에도 기미부주가 설치되었는데, 『자치통감』 권200, 고종 현경 4년 9월 조에 “石, 米, 史, 大安, 小安, 曹, 拔汗那, 悒怛, 疏勒, 朱駒半 등의 국가에 127州縣府를 설치하였다”⁹⁶⁾고 한다. 앞서 서술하였듯이 석국, 미국, 사국 등에 현경 3년 기미부주를 설치한 기록이 보이고, 소록을 포함한 사진도독부 역시 아사나하로가 진압된 이후 현경 3년 경에 다시 설치되었다. 이 조서는 지난해에 설치된 기미부주를 승인함과 동시에 설치되지 않은 곳에는 설치를 명한 것으로 생각된다.⁹⁷⁾

96) 『자치통감』 권200, 고종 현경 4년 9월 조, 6317쪽.

97) 吳玉貴 역시 현경 3년 고종이 총령 이서의 서역 제국에 사신을 보내 도독부주를 설립하고 현경 4년에 또 조령을 발표하여 정식으로 설치된 도독부주를 승인하였다고 설명하였다(吳玉貴, 『唐代西域羈縻府州建置年代及其與唐朝的關係』, 57쪽).

토화라 지역에 설치된 16도독부주가 현경 3년에 설치되어 용삭 원년(661) 6월 경 대략 16도독부, 80주, 110현, 126군부의 규모에 이른 것을 고려하면 현경 연간 동기생과 왕명원을 파견하여 파사 이동에까지 기미부주를 설치한 일은 용삭 연간까지 이어졌다고 보인다. 이는 당시 서역의 정세가 유동적이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정관 연간 타림분지 일대에 처음 사진도독부를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아사나하로의 난 진압 이후 현경 연간부터 용삭 연간까지 우전 이서, 파사 이동, 천산 이북 서돌궐 지역, 소무구성 일대에 기미부주를 설치한 것은 당조의 세력권이 점차 서쪽으로 확대되어 감을 의미한다. 즉 당조는 使行과 대외전쟁을 통해 기미부주를 설치하며 주변 세력을 자신의 영향력 하에 두었고, 기미부주 설치 영역의 확대와 함께 서역에 대한 지배력도 확장해 간 것이다.

그런데 토화라 지역의 16도독부주와 소무구성 지역의 기미부주 등은 천산 이남 타림분지에 설치한 그것과 그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사진도독부 가운데 구자도독부와 언기도독부는 처음 설치될 때에도 정복전쟁을 통해 설치되었고, 內府나 入朝를 통해 설치된 소록도독부나 비사주 역시 648년 이후에 당을 이반할 경우 무력을 통해 지배권으로 편입시켰다. 반면 토화라의 16도독부주와 소무구성의 기미부주는 왕명원과 동기생의 使行의 결과물로 설치된 것이다. 使行을 통한 외교 왕래는 정복전쟁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화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타림분지가 당의 영토와 맞닿아 있어 그곳에 위치한 오아시스 소국가들의 동향에 따라 당조의 서역 지배가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력을 통한 정복으로 위엄을 보이고 서역 지배의 전초기지로 선택한 것이다. 또한 기미부주의 층차적 측면에서도⁹⁸⁾ 기미부주 설치가 어느 정도 확립된

98) 기미부주의 제도적 층차에 대해서는 정병준, 「唐 初期 羈縻府州의 出現과 制度的 境界」, 『東國史學』 65, 2018 참조.

이후 타림분지의 사진도독부에는 당조에서 임명한 관료가 파견되고⁹⁹⁾ 安西四鎮과 같은 唐軍이 주둔하였지만, 당 초기 토화라의 16도독주부에는 이러한 요소 없이 명목상에 불과한 기미부주였을 것으로 생각된다.¹⁰⁰⁾

V. 맺음말

隋末唐初 西域의 霸者是 중원왕조가 아닌 東·西突厥이었다. 이 때문에 당 초기 西域 羈糜府州의 설치는 당과 돌궐과의 관계에 따라 진퇴를 거듭하였는데, 그 시기는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태종 정관 연간의 최초 설치기이다. 정관 원년(627) 경부터 동돌궐이 자연재해와 내부 분쟁, 휘하 薛延陀 등의 배반으로 서역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해 가자, 이 틈을 타 당조가 정관 4년(630) 동돌궐을 멸하였다. 그 여파로 돌궐의 휘하와 인접 국가들에서는 당으로 사신을 보내 조공을 바치거나 內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당조는 內附와 정복전쟁으로 天山 이남의 타림분지 일대에 羈糜府州를 설치해 서역 지배의 토대를 구축하였다. 둘째는 고종 즉위 초의 후퇴기이다. 태종 정관 22년(648) 서돌궐의

99) 투르판 출토 아스타나 239호 문서「唐西州高昌縣成默仁誦經功德疏」에서 成默仁이 別勅으로 焉耆都督府錄事에 제수된 사실이 확인된다.

100) 사진도독부, 16도독부주, 소무구성 지역의 기미부주 등 서역의 기미부주는 명목상 설치된 것과 당조의 임명을 받은 관료의 파견, 당군의 주둔 측면에서 충차를 지닌다. 명목상에 불과한 것은 16도독부주 및 소무구성 지역의 그것과 635년에 설치된 소록도독부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658년 안서도호부가 설치되고 四鎮 지역에 당군이 주둔하면서부터 사진도독부는 명목만 존재한다기 보다는 당의 실질적 지배하에 있었을 것이다.

阿史那賀魯가 부락을 이끌고 당에 내부하였다. 그러나 태종이 사망하자 고종 영희 2년(651) 초 아사나하로는 당을 이반하여 서돌궐을 규합하고, 천산 남북과 昭武九姓 일대에 이르는 西域諸國의 대부분을 장악하였다. 아사나하로의 난은 7년여 동안 지속되었고, 이 기간 당조는 2차례에 걸쳐 토벌군을 보냈으나 번번이 실패함에 따라 서역에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셋째는 현경 연간에서 용삭 연간에 이르는 팽창기이다. 현경 2년(657) 말 伊麗道行軍總管 蘇定方이 이끄는 3차 토벌군이 아사나하로를 평정한 뒤야 당조는 다시 서역을 공략할 수 있었다. 기미부주가 설치된 영역이 타림분지 일대에 그쳤던 최초 설치기와 달리 팽창기에 이르러 당조는 使者를 보내 西域諸國과 통교하고, 한편으로는 정복전쟁을 통해 관할 범위를 확대하여 용삭 원년(661) 6월에 이르기까지 점차 葱嶺 이서로 팽창해갔다.

당 초기 서역 기미부주는 지역적으로 당과의 인접성, 서역 지배 구축에서의 중요도에 따라 天山 이남의 타림분지와 河西內屬諸胡 지역, 吐火羅 일대, 昭武九姓이 위치한 중앙아시아의 河中 지역과 서돌궐 영역의 천산 이북으로 나뉜다. 정관 연간 타림분지에는 四鎮都督府가 설치되었는데, 제일 먼저 설치된 기미부주는 정관 9년(635) 名馬를 바치고 內附한 疏勒國의 疏勒都督府이다. 소르도독부는 15개의 소속 기미주를 거느렸다. 다음으로 焉耆國은 교통로의 문제로 高昌國과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정관 14년(640) 당조가 고창국을 멸하면서 고창국에게 빼앗긴 포로와 성곽을 언기국에 돌려주자 당과 통교하였다. 그러나 이후 서돌궐과 통혼한 뒤로 당에 조공을 끊었고, 당조는 이를 이유로 정관 18년(644) 安西都護 郭孝恪을 파견해 언기를 멸하고 焉耆都督府를 설치하였다. 언기도독부에는 소속 기미주가 없다. 龜茲國은 광효각이 언기를 공격할 때 군대를 파견해 몰래 언기를 도왔고, 이 때문에 정관 22년(648) 말 당조의 공격을 받아 멸망하였다. 龜茲都督府는 이때 설치되었으며 9개의 기미주를

거느렸다. 于闐國에는 648년 당조의 구자 원정 당시 行軍長史 薛萬備의 설득으로 당에 입조하게 되면서 기미주가 설치되었다. 우전국의 경우 처음에는 毗沙州를 설치하여 5개의 기미주를 거느리게 했는데, 상원 2년 도독부로 승격시키면서 소속 기미주를 10개로 나누었다. 『新唐書』地理志, 安西都護府 조에는 四鎮都督府의 뒤에 河西內屬諸胡의 12州와 2府를 열거하고 있다. 이 12州와 2府 가운데 烏壘州·和墨州·溫府州·蔚頭州·遍城州·耀建州·寅度州·達滿州·郢及滿州·乞乍州·豬拔州·蒲順州와 渠黎都督府는 天山 이남에 위치해 사진도독부에 속하였다.

吐火羅 지역에는 置州縣使 王名遠에 의해 현경 3년(658) 月支, 大汗, 條支, 天馬, 高附, 脩鮮, 寫鳳, 悅般州, 奇沙州, 姑墨州, 旅葵州, 崑墟州, 至拔州, 烏飛州, 王庭州, 波斯 등 16개 都督州府가 설치되기 시작해 용삭 원년(661) 6월에 이르러서는 대략 16도독부, 80주, 110縣, 126軍府의 규모로 확대되었다. 소무구성 지역에는 果毅 董寄生의 使行으로 현경 3년 무렵 康國에 康居都督府, 史國에 陸沙州, 安國에 安息州, 東安國에 木鹿州, 石國에 大宛都督府, 米國에 南謐州, 何國에 休循州都督 등이 설치되었다. 아사나하로가 평정된 이후 天山 이북에는 서돌궐 5咄陸部에 濛池都護府와 5弩失畢部에 崑陵都護府가 설치되었고, 碎葉의 碎葉州 등 부락별로 소속 기미주가 설치되었다.

당조는 태종대 타림분지를 시작으로 고종대 葱嶺 이서와 波斯 이동에 이르기까지 서역에 기미부주를 설치하여 安西都護府에 예속시켰다. 각각의 설치 방식을 살펴보면, 초기 설치기에 타림분지의 사진도독부 가운데 소록도독부와 비사주는 內附나 入朝에 의해 설치되었고, 구자도독부와 언기도독부는 정복전쟁에 의해 설치되었다. 이는 당이 서쪽으로 본격적인 세력 확장을 시작할 당시 지역적으로 구자와 언기는 당과 인접하였고, 상대적으로 소록과 우전은 거리가 있어 정복 군대를 동원하기 힘든 위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타림분지의 오아시스 소국가들이 당에

게서 이탈할 경우 당조는 대부분 외교보다는 무력을 이용하여 기미부주를 설치하였다. 이는 타림분지가 당과 영토가 맞닿아 있어 이곳에 위치한 오아시스 소국가들의 동향이 당의 서역 지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반면 토화라 일대의 16도독부주와 소무구성 지역의 기미부주는 모두 使行의 결과로 설치되었다. 토화라와 소무구성 일대에 처음 기미부주를 설치할 당시에는 당조가 멀리 군대를 파견하기 어려운 점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사신을 왕래하며 기미부주를 설치한 것은 점차 東進해 오던 大食을 고려하여 이들 지역을 완충지대로 삼기 위함이었다. 천산 이북 서돌궐 지역에는 아사나하로 평정에 공을 세운 阿史那步眞과 阿史那彌射를 각각 繼往絕可汗·崑陵都護, 興昔亡可汗·濛池都護로 삼아 기미부주를 운영하였다. 이렇듯 서역을 둘러싼 당, 동·서돌궐, 대식 등의 국제정세 속에서 설치된 당 초기 서역 기미부주는 당조의 서역 지배를 구축하는 토대의 하나이자 그 지배력의 범위를 추정할 수 있는 지표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2019.04.21 투고 / 2019.05.27 심사완료 / 2019.05.27 게재확정)

[Abstract]

The regional study of Western Jimifuzhou in Early Tang Dynasty

Lee, Jin-sun

The Tang Dynasty defended and expanded the change through the Jimi Policy and the General care system. A typical form of Jimifuzhou can be seen in the Early Tang Dynasty period, the heads of the other countries were appointed to the governor and provincial governor, and autonomously governed. This Jimi Policy is also important in that the previous Chinese dynasties are the ruling method applied to neighboring countries.

The Jimifuzhou installed in the Western area were repeatedly installed and abolished according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ang Dynasty and the surrounding forces, and the way also changed. The geographical records of 『Old Tang Dynasty books』 and 『New Tang Dynasty books』 list the Jimifuzhou. First is the four Dohobu of Qiuci(龜茲), Pisha(毗沙), Shule(疏勒) and Yanqi(焉耆) which are installed in Tarim Basin. The second is the sixteen Dudufu and provinces in the Pamir Highlands, north of the Indus River, south of the AmuDarya River and around Iran. All of these Jimifuzhou were subordinated to Protectorate-General of Anxi(安西都護府).

Four Dudufu built in the Tarim Basin were installed during the Zhengguan. The 16th Dongxing District of the West Zone began to be installed from the 3rd year of Xianqing(顯慶). In the first year of

Longshuo (龍朔), it was roughly 80 states(州), 110 prefectures(縣), and 126 military bases(軍府). This means that the influence of the Tang Dynasty on the West is gradually widening to the west. It will be an indic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ang Dynasty and the surrounding forces in the west area and the extent of the Anxiduhufu(安西都護府)'s expansion during the period from the Tai-zong Dynasty to the Gao-zong Dynasty.

□ Keyword

Western region, Jimifuzhou, Tarim Basin, Tokharoi, Oghuz Turks

[참고문헌]

1. 사료

『舊唐書』, 『新唐書』, 『資治通鑑』(中華書局標點本)

『唐會要』(上海古籍出版社)

『通典』, 『冊府元龜』, 『全唐文』(中華書局)

『石刻史料新編 第一輯』(新文豐出版有限股份公司)

『元一統志』(中華書局)

E. Chavannes 저, 馮承鈞 譯, 『西突厥史料』, 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2016(初版 1934).

동북아역사재단 편, 『구당서 외국전 역주』 상·하, 동북아역사재단,
2011.

동북아역사재단 편, 『신당서 외국전 역주』 상·중·하, 동북아역사재단,
2011.

2. 논저

전영, 『당대 전기 대외관계에 관한 연구』, 경인문화사, 2018.

정재훈, 『돌궐 유목제국사 - 아사나 권력의 형성과 발전, 그리고 소멸』,
사계절, 2016.

호리 도시카즈 저, 정병준 등 역, 『중국과 고대 동아시아의 세계 - 중화
적 세계와 여러 민족들』,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2.

蘇北海, 『西域歷史地理』, 新疆大學出版社, 1988.

艾衝, 『唐代都督府研究 - 兼論總管府·都督府·節度司之關係』, 西安地圖
出版社, 2005.

劉統, 『唐代羈縻府州研究』, 西北大學出版社, 1998(劉統 저, 정병준·채지
혜·유승철 역, 『당대 기미부주 연구(1)』, 『新羅史學報』 23, 2011).

- 王小甫, 『唐·吐蕃·大食政治關係史』,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9(初版 1992).
- 許序雅, 『唐代絲綢之路與中亞史地叢考—以唐代文獻爲研究中心』, 商務印書館, 2015.
- 伊瀨仙太郎, 『中國西域經營史研究』, 巖南堂書店, 1968.
- 김호동, 「唐의 羈縻支配와 北方 遊牧民族의 對應」, 『역사학보』 137, 1993.
- 김택민, 「특별한 帝國 唐」, 『역사학보』 217, 2013.
- 정병준, 「唐代 異民族 管理方式의 다양성 및 그 변용 —羈縻府州 제도를 중심으로—」, 『東洋史學研究』 143, 2018.
- 정병준, 「唐 初期 羈縻府州의 出現과 制度的 境界」, 『東國史學』 65, 2018.
- 이진신, 「唐 高宗代 碎葉鎮 設置와 西域支配」, 『中國史研究』 96, 2015.
- 이진신, 「唐 前期 安西四鎮의 設置와 變化樣相」, 『東洋史學研究』 141, 2017.
- 채지혜, 「唐 前期 北方 羈縻府州의 設置와 變化」, 『東洋史學研究』 125, 2013.
- 姜琦, 「隋唐의 西北邊疆政策 研究」,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 郭聲波·顏培華, 「渠犁·閼廛·焉塞: 唐中期新置西域羈縻都督府探考」, 『中國邊疆史地研究』 2010-1.
- 郭聲波·買買提祖農 阿布都克力木, 「毗沙都督府羈縻州之我見——兼評《唐代于闐的羈縻州與地理區劃研究》」, 『西域研究』 2014-2.
- 馬小鶴, 「唐代波斯國大酋長阿羅憾墓志考」, 榮新江·李孝聰 主編, 『中外關係史—新史料與新問題』, 科學出版社, 2004.
- 薛宗正, 「唐四鎮都督府的建置」, 『中國邊疆史地研究』 1992-3.
- 吳玉貴, 「唐代西域羈縻府州建置年代及其與唐朝的關係」, 『新疆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86-1.

王義康, 「《新唐書·地理志》羈縻府州補闕」, 『中國文化』 36, 2012.

劉安志, 「敦煌所出張君義文書與唐中宗景龍元年間西域政局之變化」, 『魏晉南北朝隋唐史資料』 21, 2004.

朱麗雙, 「唐代于闐的羈縻州與地理區劃研究」, 『中國史研究』 2012-2.

陳國燦, 「唐乾陵石人像及其銜名的研究」, 『文物集刊』 2, 文物出版社, 1980.